

할리우드, 아메리카, 그리고 그 너머*

: 『할리우드 프리즘: 20세기 한국영화와 할리우드』, 소명, 2017

김청강**

<국문초록>

이 글은 2017년 말 연구모임 시네마바벨이 펴낸 『할리우드 프리즘』을 독해하며, 할리우드 영화의 한국적 수용 연구에 관한 평가와 전망을 담은 짧은 논평이다. 시네마바벨의 전작인 『조선영화와 할리우드』가 20세기 초반 1, 2차 세계대전을 전후의 할리우드 영화라는 “(대)타자”를 고리삼아 조선영화의 지형도를 탐문하였다면, 『할리우드 프리즘』은 그 지평을 1차 세계대전 시기부터 1980년대까지로 넓혔다. 시기적 확장 이외에도 이 책은 다양한 면에서 진일보한 연구서라고 평가할 수 있다. 전작이 할리우드를 비교적 단선적이고 집합적인 내셔널 시네마로 상정하고 할리우드 영화가 조선영화의 제작, 배급, 수용에 끼친 영향을 주로 살펴보았다면, 『할리우드 프리즘』은 제목이 시사 하듯이 한국(조선 혹은 남한)이 ‘보편’으로 상정하고 있던 미국-할리우드가 실상은 다양한 얼굴과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음과, 따라서 다양한 방식으로 한국영화와 만날 수밖에 없었음을 세심하게 살펴보았다. 흥미로운 주제들로 구성된 총 12편의 논문은 이렇게 다양한 할리우드의 얼굴이 한국 사회, 문화, 정치적, 역사적 상황에 따라 어떻게 다채롭게 받아들여졌는지를 생동감 있게 예시한다.

* 이 글의 제목인 『할리우드, 아메리카, 그리고 그 너머』는 『할리우드 프리즘』의 저자 중 이선주의 논문 제목 “할리우드와 그 너머”를 재인용 한 것이다.

** 한양대학교 비교역사문화연구소 HK교수.

20세기 초에 형성되어 현재까지도 세계 1위의 영화산업을 유지하고 있는 할리우드. 그 지속성과 '보편성, 그리고 글로벌 시네마로서 영향력은 오늘날까지도 위력을 떨치고 있다. 해외에서는 할리우드의 '성공' 요인이거나 각국의 내셔널 시네마와의 관계에 관한 다수의 연구가 오래 전부터 진척 되어왔다. 대표적으로 영국영화협회(British Film Institute)에서 발행한 할리우드 시리즈는 할리우드 영화의 수용성에 관한 흥미로운 연구들을 묶어내었고, 2004년에 발행된 *Hollywood Abroad*에서는 할리우드 영화의 해외 지역 수용성에까지 연구의 폭을 넓혔다.¹⁾ 또한 할리우드 영화의 성공 기저에 숨어있는 정치/경제(political economy)적 요인에 관한 연구도 왕성히 진행되고 있다.²⁾

그러나 할리우드 영화의 압도적인 위상에 비해 한국에서는 아직까지 할리우드의 한국적 수용에 관한 연구는 그다지 많지 않다. 특히 반미주의가 영화계를 휩쓸었던 1980년대를 거치면서, 할리우드 영화에 관한 연구는 문화적 제국주의나 신식민주의를 비판하는 입장이 주류를 이루었다.³⁾ 그러나 현재 한국영화가 '한류'라는 글로벌 시네마로 성장, 발전했음을 생각해 볼 때, 일방적인 문화제국주의-문화수탈의 도식으로만은 한국 영화의 '생존과 '성공'을 설명하기 힘들며, 그간 할리우드와 한국영화가 맺어온 다양한 층위 또한 충분히 설명해내기 어렵다. 한국영화와 할리우

1) British Film Institute(BFI)에서 발행한 할리우드 연구 시리즈는 다음과 같다. *American Movie Audiences: From the Turn of the Century to the Early Sound Era*, 1999; *Identifying Hollywood's Audiences: Audiences and Cultural Identity*, 1999; *Hollywood Spectatorship: Changing Perceptions of Cinema Audiences*, 2001; *Hollywood Abroad: Audiences and Cultural Exchange*, 2004. *Global Hollywood 2*, 2005.

2) 2005년에 BFI에서 발행한 *Global Hollywood 2*는 정치-경제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실증연구로 다루고 있다.

3) 이러한 경향의 대표적인 연구로는 조혜정의 박사학위 논문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이 논문은 미군정기 동안 한국으로 덤핑된 미국의 영화들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를 성공적으로 해냈지만, 미국영화를 받아들이는 한국 관객을 지극히 수동적 수용자로 설정하고 있다. 조혜정, 「미군정기 영화정책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7.

드 영화의 관계에 관해 두 번째 책을 내놓은 영화 연구모임 시네마바벨의 『할리우드 프리즘: 20세기 한국영화와 할리우드』(이하 『할리우드 프리즘』)가 반가운 이유이다.

연구모임 시네마바벨이 4년 전에 내놓은 전작 『조선영화와 할리우드』가 20세기 초반 1, 2차 세계대전 전후의 할리우드 영화를 (대)타자의 고리삼아 조선영화의 지형도를 탐문하였다면,⁴⁾ 『할리우드 프리즘』은 그 지평을 1차 세계대전 시기부터 1980년대까지로 넓혔다. 시기적 확장 이외에도 이 책은 다양한 면에서 진일보한 연구서라고 평가할 수 있다. 전작이 할리우드를 비교적 단선적이고 집합적인 내셔널 시네마로 상정하고 할리우드 영화가 조선영화의 제작, 배급, 수용에 끼친 영향을 주로 살펴보았다면, 『할리우드 프리즘』은 제목이 시사하듯 한국이 ‘보편’으로 상정하고 있던 미국-할리우드가 실상은 다양한 얼굴과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음과, 따라서 다양한 방식으로 한국영화와 만날 수밖에 없었음을 세심하게 살펴본다. 흥미로운 주제들로 구성된 총 12편의 논문은 이렇게 다양한 할리우드의 얼굴이 한국 사회, 문화, 정치적, 역사적 상황에 따라 어떻게 다채롭게 받아들여졌는지를 생동감 있게 예시한다.

그 첫 장인 “이동하는 영화, 주변부의 관객”은 주로 ‘감상의 시대’에 머물러있던 20세기 초, 할리우드 영화가 조선에 수용된 방식을 탐문한다. 한상언은 1차 세계대전을 전후한 시기에 할리우드가 조선영화 상영에서 압도적인 위치를 차지할 수 있었던 이유를 제1차 세계대전을 기점으로 촉발된 전지구적인 영화 유통 구조의 변화, 그리고 이와 연동하여 변화한 동아시아 영화유통 구조에서 파악한다. 할리우드의 부상을 영화 유통의 트랜스내셔널한 정치-경제적 구조에서 파악했다는 점이 흥미롭다. 이보다 조금 뒤 시기를 다루는 류수연과 전우형의 논문에서는 할리우드 영화가 조선의 다른 문화 영역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하였다. <이

4) 연구모임 시네마바벨 편, 『조선영화와 할리우드』, 소명, 2014. 4쪽.

트 걸>과 같은 할리우드 영화의 성공은 상당히 모호했던 조선의 신여성 이미지를 ‘모던 걸’이라는 성애화된 이미지로 창출하는데 기여했고 (류수연), 일본제국의 할리우드 영화 상영 축소 계획은 글쓰기와 영화매체가 결합된 새로운 미적 재현 장치인 “시네마 콩트”라는 장르를 생성하기도 했다(전우형). 다시 말해, 제작의 여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감상의 시기”에 머물렀던 조선에서, 할리우드의 수용은 새로운 사회-문화적 지형도를 만들어내는데 기여했다.

두 번째 장 “(안티)아메리카니즘과 할리우드 담론의 역사성”에서는 할리우드 영화가 수반한 아메리카니즘이라는 가치체계에 대한 다양한 담론의 지형도를 살폈다. 백문임은 할리우드 영화에 대한 평론이 유럽영화 혹은 세계영화와 경쟁하는 긴장감 속에서 조선인들에 의해 선택적으로 받아들여졌음을 흥미롭게 서술한다. 할리우드 영화 중 중산층을 위한 멜로드라마인 블루버드 영화가 선택적으로 받아들여졌던 점, 러시아 영화나 유럽의 예술영화가 강세를 보이자 할리우드 영화에 대한 반감이 가중되는 점 등을 제시하며, 할리우드에 대한 수용이 다채롭게 변화하는 과정을 흥미롭게 포착한다. 이어지는 이화진의 글 또한 해방 이후 남한-미국의 비대칭적 정치 구조 속에서 ‘아메리카라는 가치가 이율배반적으로 수용되었던 지점을 탐구했다. 그에 따르면 미국의 점령기 동안에도 ‘아메리카라는 가치는 조선인들을 지배하지 못했고, 오히려 반감을 불러일으켰다. 그리고 흥미롭게도 그 반감의 자리를 영화국영화론이라는 식민적 구조가 회귀하여 차지했다는 점을 지적한다. 이와는 달리, 박연희는 박인환과 같이 해방기에는 미국과 할리우드에 반감을 가졌다가, 한국전쟁과 미국 여행을 통해 할리우드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케이스를 예시한다. 결국, 이 장에서는 미국-할리우드라는 ‘지배적 문화’의 수용이 문화제국주의적 측면에서 일방적으로 피식민지인들에게 덤핑되었다는 가정을 뒤집으며, 할리우드의 수용이 실상은 조선인들의 할리우드 영화에 대한 ‘선택적’ 결정에 의해 지속적으로 변화했음을 보여준다.

세 번째 장 “할리우드를 계몽의 언어로 번역하기”에서는 영화의 사회·정치적 기능에 초점을 맞추고, 할리우드 영화가 조선과 해방 후 남한의 정치적 상황에서 어떻게 “계몽”의 역할을 맡거나 계몽의 영화를 만드는 데 일조했는지를 예시한다. 필자마다 분석의 밀도는 다르지만, 할리우드의 직, 간접적 영향력이 조선과 남한 계몽영화를 낳는데 큰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는 논점을 같이한다. 특히 <미몽>과 같은 교통영화(박현희), 할리우드와 한국의 일련의 전기영화들 (심혜경), 그리고 갱스터 영화를 흡수한 경찰영화 (전지니)와 같은 장르영화의 형성의 배경에는 할리우드가 크게 자리했으며, 이러한 개입이 결국 국민/시민을 만들어내는 근대적 훈육을 담당하고 윤리적 미학을 제시했다. 이러한 관점은 스티브 정이 그의 저서 *Split Screen Korea*에서 1960년대 신상옥이 만들어낸 할리우드식 영화가 실제로 얼마나 계몽적인 역할을 하였는지 논의한 것과도 연관이 되며,⁵⁾ 할리우드 영화의 트랜스내셔널한 사회적 기능에 관해서 앞으로 더욱 많은 연구가 나올 수 있는 지점으로 파악된다.

마지막 4장은 “한국영화의 현대성과 할리우드 하이브리드”이다. 이 장에서는 1960년대 한국영화의 황금기를 겪으며, 영화 생산국으로서 자리매김하고, 다양한 미국·할리우드의 경험이 한국영화에 녹아나는 시점에 만들어진 한국(남한) 영화를 분석했다. 저자들이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이 시기에는 미리암 한센이 일컫는 이른바 “버나쿨라 모더니즘(vernacular modernism)”⁶⁾이 영화적으로 구현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장에서는 할리우드 영화 자체가 이전 시기보다 훨씬 복합적인 하이브리드 영화였음

5) 스티브 정은 이를 한국영화의 “계몽적 모드(enlightenment mode)”로 명명한다. Steven Chung, *Split Screen Korea*, Minnesota: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2014.

6) 이 책의 여러 필자들도 각 챕터에서 미리암 한센의 “버나쿨라 모더니즘”에 대해서 언급하였다. 버나쿨라 모더니즘은 할리우드라는 글로벌 영화가 각 지역에 불러일으키는 새로운 근대적 미감으로, 고급예술이 지향하는 모더니즘과는 구별되고 지역적 문화와 연계하여 새롭게 만들어진 모더니즘을 일컫는다. Miriam Hansen, “The Mass Production of the Senses-Classical Cinema as Vernacular Modernism”, Christine Gledhill and Linda Williams (Eds.), *Reinventing Film Studies*, London: Arnold, 2000.

을 지적하고, 이것이 어떻게 스릴러와 같은 한국영화의 장르나 하길종과 이장호라는 작가주의적 영화로 수렴되어 한국적으로 발화하는 지를 치밀하게 예시한다. 이선주는 60년대 한국영화의 스릴러 장르가 어떻게 유럽적 예술영화와 할리우드적 스릴러가 복합된 한국적 장르로 구현되었는지를 분석했다. 박현선은 <수절>을 분석하며, 하길종이 미국유학 경험을 통해 얻은 코스모폴리탄한 영화감각으로 박정희 정권의 유신체제 안에서도 작가정신을 잃지 않고 실험적인 영화를 만들 수 있었다고 평가한다. 마지막으로 이윤중은 1980년대의 반미(Anti-Americanism)라는 압도적인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도 미국영화 <미지의 여인에게서 온 편지>를 <Y의 체험>으로 복제했던 이장호의 '분열적 오마주'를 분석한다. 이 과정에서 미국영화 <미지의 여인>이 유럽영화로 (오)인식되었던 지점은 무척 흥미롭다. 전체적으로 이 장은 할리우드와 한국영화의 상호적 독해의 지평이 얼마나 풍부할 수 있는지를 예시했다.

요약한 바와 같이 『할리우드 프리즘』은 할리우드 영화의 한국적 수용에 관한 지평과 폭을 대폭 넓혔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좀 더 발전시켜 논의하였으면 하는 부분도 있다. 이를 다음 세 가지 측면에서 논하며, 앞으로 할리우드와 한국 영화를 연구하는 데에 있어서 같이 고민하고 싶은 지점으로 제시하고 싶다.

1) 수용의 '차이'에 대한 적극적 해석

가장 먼저 논의를 시작하고 싶은 부분은 할리우드라는 헤게모니적 문화 권력을 수용하는데 나타나는 수용성의 '차이'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이다. 이 책을 묶는 키워드는 할리우드이고, 주된 관심사는 할리우드의 한국적 '수용'이다. 그러나 반복하지만 이 책의 서문에 나와 있듯이 이 책은 "할리우드가 한국에 미친 정치적, 경제적, 사회문화적인 영향력이 얼마나 강력했는가(3면)"를 밝힌 것이 아니다. 오히려 20세기 초부터 할리우

드라는 이름 안에 얼마나 다양한 할리우드 영화들과 가치들이 존재하고 있었으며, 이것이 한 국가 내에 수용될 때에 얼마나 많은 지역적, 산업적, 지구적 구조가 간섭/통섭하며 수용국의 문화와 다양한 관련을 갖는지를 드러낸 것이다. 이런 면에서 이윤종의 “할리우드를 미국 내셔널 시네마라고 단언하고 간주하기에는 고려할 것들이 너무나 많다(495면)”는 지적은 매우 적확해 보인다. 이는 이 책의 모든 필자들이 다루는 다양한 할리우드 영화에서만도 단적으로 드러나며, 때문에 수용의 맥락도 매우 다양한 차이를 낳는다.

예를 들어 1차 대전 후에 중점적으로 받아들여진 할리우드는 일본과 동남아를 매개로 한 유통구조의 특수성에 기인한 유니버설의 영화사를 중심으로 한 것일 수밖에 없었다. 또한 조선 내에서도 할리우드에 관한 관람성의 차이를 보인다. 조선 내 일인 영화관에서는 인기가 별로 없었던 유니버설 영화는 조선인에게는 인기가 있었다 (한상언).⁷⁾ 일본에서는 잇트걸의 이미지가 개방적인 방식 혹은 보수적인 방식으로 다양하게 수용되었다면,⁸⁾ 조선에서는 위험한 여성을 통제하는 방식이 주조를 이룬 듯하다(류수연). 다른 나라에는 없는 시네마 콩트라는 장르가 조선에서는 할리우드 영화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생겨났으며(전우형), 일본에서는 없었던 교통영화라는 장르가 조선에서는 상당히 빈번히 만들어졌다(박현희). 즉 각 역사적 시점마다 개입하는 할리우드의 얼굴이 다양한 만큼 수용의 차이 또한 다양하다. 따라서 할리우드의 수용이 천편일률적으로 지

7) 이화진은 초기 영화수용에서 드러나는 이러한 종족관람성(ethno-spectatorship)을 동족어에 의한 공간 구분에 기인한 것으로 파악한다. 이화진, 『소리의 정치: 식민지 조선의 극장과 제국의 관객』, 현실문화, 2016.

8) 히데아키 후지키는 할리우드 배우 클라라 보의 이미지가 다양하게 수용되는 맥락을 제시한다. 일례로, 초기에 클라라 보의 이미지를 차용했던 배우 쿠리시마 스미코는 후에는 전통적인 여성상으로 자신의 이미지를 바꾸었다. 수용자가 이렇듯 선택적으로 자신의 이미지를 채용할 수 있었다는 점은 할리우드를 수용하는 수용연구가 더욱 풍부해질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Hideaki Fujiki, *Making Personas: Transnational Film Stardom in Modern Japan*,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2013 참조.

배적일 수 없으며, 한국의 사회, 문화, 정치 경제적 조건에 따라서 다양한 수용의 효과를 낳는다.

『할리우드 프리즘』에서는 이러한 다양한 수용의 맥락들이 잘 제시되었다. 그러나 아쉽게도 이러한 수용에 있어서의 ‘차이’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특히 식민지시기의 수용의 특수성을 설명할 때, 필자마다 온도의 차이는 있지만, 결국 어느 정도는 식민권력의 개입이 식민지에만 존재하는 독특한 수용 ‘차이’를 낳았다는 결론에 다다르고 있는 듯하다. 물론 식민지시기 영화의 수용 연구가 직접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한계 속에서 식민지 시기의 수용 연구가 식민 권력=문화권력=억압이라는 메타적 해석으로 귀결할 가능성은 다분히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결론이 오히려 할리우드를 수용하는 다양한 방식에 대한 해석의 여지를 좁힐 가능성도 있다.

가령 씨네마 콩트라는 새로운 반항적 문화장르가 탄생하였다는 점에서 버나쿨라 모더니티가 생성되었다고 파악할 수 있겠지만, 이것이 식민 권력에 대한 어떤 비평적 기능을 수행했는지에 대한 해석은 불분명하다. 이트걸이나 <미몽>의 경우에도 여성의 몸을 규율하는 권력구조가 ‘식민지적 특성’에 의한 수탈적 구조 속에서 생성된 것이라고 파악하면, 이후 남한이라는 민족-독립국가가 여성의 몸을 규율하는 권력구조는 설명하기 어렵다. 다시 말해, 식민권력의 개입이 수용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결론에 이를 경우, 수용자의 다양하고 적극적인 수용성에 대한 해석은 축소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지점은 이 책의 첫 번째 섹션의 제목 “이동하는 영화, 주변부의 관객”에도 드러난다. 이러한 보편영화와 변경이라는 구도에서는, 식민지 조선이 할리우드와 일본이라는 두 개의 제국적 권력 속에서 침윤당하는 ‘주변부’로 위치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정치-문화적 주변부에서는 문화 수용도 주변적/수동적일 수밖에 없는가? 또한 같은 할리우드 영화에도 반감을 보이는 경우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경우도 있다. 이 수용의 차이를 과연 어떤 논리로 설명해 낼 수 있을 것인가?

가? 역으로 한국에서 나타난 이러한 수용의 차이들이 할리우드 영화의 이면을 드러내는 데에 유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

2) 식민지 근대성과 포스트-콜로리얼리티의 문제

이 책에서는 집중적으로 언급되고 있지는 않지만, 이화진이나 전지니는 해방 후 포스트-콜로리얼리티에 관한 문제를 한국적 사회, 문화의 복합적 지형도 속에서 논의하고 있다. 가령, 이화진은 반미적 감정이 오히려 일제의 전시체제 속에서 겪은 영화국가주의로의 회귀를 불러왔다고 주장한다. 전지니에 의하면 일제 말기 선전 영화가 “전쟁 승리를 위해 군인이 되고자 하는 청년-소년과 이들을 후방에서 후원하는 누이-아내의 이야기”가 해방 후 경찰영화에서는 정부수립을 위해 “경찰복을 입고 사회 안전에 앞장서는 청년과 이들에게 구제되는 여성”의 이야기로 전이되었다. 묻고 싶은 것은 왜 후기 식민국가에서 한국 영화인과 영화가 회귀하는 지점이 결국 식민의 경험인가 하는 것이다. 물론 모든 사람이 같은 지향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해방 후 많은 영화인들이 취한 이러한 식민지 문화로의 회귀는 식민지 근대성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던질 뿐만 아니라, 이후 한국의 근대성에 드러나는 식민 권력의 재출현 문제를 논의하는데도 중요한 지점으로 보인다.

이러한 문제에 해결의 단초를 제시해주는 것이 바로 포스트-콜로니얼적 문화 독해일 것이다. 예를 들어, 식민지시기에 관한 연구는 아니지만, 박현선은 유신이라는 극단적 통제가 가능했던 시대의 하길종 영화를 분석하면서 사카이 나오키의 “쌍형상화(co-figuration, 436면)”적 문화생산구조를 인용하였다. “쌍형화”란 식민 권력구조의 비대칭성 속에서도 피식민자도 식민자의 문화에 상응하는 쌍형상을 만들어낸다는 포스트-콜로니얼 독해이다. 이를테면, 군사주의가 식민 권력 못지않은 강한 권력을 자행하던 때에도, 한국영화인이 취한 다양한 입장은 항상 권력추수적이거나 서

구의 근대성에 압도된 형태로만 드러나지 않았다. 이러한 해석은 해방 후 한국의 문화에 ‘무의식적’으로 드러나는 식민지적 근대성에 대해서도 답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한국에 있어서 식민지의 경험은 집단적 트라우마화 되어 “과거를 폄하하고, 부정하며 열등한 것으로 간주”해 온 경향이 있지만,⁹⁾ 남한의 문화에 ‘근대적’ 식민문화/혹은 제도가 산재되어 있었던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¹⁰⁾ 이러한 문화를 접할 때 ‘청산하지 못한 과거’라는 도식은 너무나 정치적인 접근 방식이며, 식민지 근대성을 경험한 해방 후 남한이라는 로컬이 가지고 있는 특정한 포스트-콜로니얼한 “지정학적 무의식” 혹은 “지정학적 미학”¹¹⁾이 무엇인지 규명하려는 노력은 더 필요해 보인다.

3) 할리우드와 젠더-섹슈얼리티

마지막으로 『할리우드 프리즘』에서 할리우드 수용이 만들어낸 한국의 젠더와 섹슈얼리티의 정치와 그것의 한국적에 수용에 관해서 언급하며 글을 마칠까한다. 그간 할리우드의 얼굴은 문화를 침식하는 제국주의적 혹은 젠더 중립적인 것으로 인식되어왔다. 그러나 이 책의 많은 챕터들이 드러냈듯이, 할리우드 수용은 전혀 젠더 중립적이지 않았다. 할리우드 영화 <이트 걸>은 한국의 모던 걸 이미지 형성에 미치거나, 할리우드 갱

-
- 9) 유선영, 『식민지 트라우마: 한국 사회 집단 불안의 기원을 찾아서』, 푸른역사, 2017.
 10) 이에 관한 최근의 논의로는 한석정의 『만주모던』이 있다. 식민지 조선의 경영을 바탕으로 축적된 최신 모더니티를 구가하던 만주의 모더니티가 해방 후 한국사회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탐구한 이 책은 해방 후 한국 문화의 모더니티의 재해석에도 많은 시사점을 제시한다. 한석정, 『만주모던』, 문학과 지성사, 2016.
 11) 프레드릭 제임슨은 일정한 지역에 나타난 미학적 특질을 “지정학적 미학”의 개념으로 설명한다. 그에 따르면 이러한 지정학적 미학은 지정학적 무의식에 기반하여 있다. 지정학적 무의식은 그의 ‘정치적 무의식(the political unconscious)’ 개념을 지역적으로 확장하여 개념화 한 것으로, 의식의 불평등 구조가 특정 지역의 무의식에 의해 발현되는 것을 의미한다. Fredric Jameson, 조성훈 역, 『지정학적 미학』, 현대미학사, 2007. 이 책에서는 전우형이 시네마 콩트 장르를 두고 “지정학적 미학”으로 지칭했다.

스터 영화의 피스톨을 든 남성이 한국의 경찰영화의 이미지로 재형상화 되고, 미국에서는 여성영화로 종종 읽히는 <미지에서 온 여인의 편지>가 한국에서는 남성판타지로 전유된 <Y의 체험>으로 리메이크 되었다. 심혜경도 미국의 전기 영화 중 <퀴리부인>에서 여성의 젠더가 민주주의적 발전주의를 유포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음을 언급하였고, 백문임도 한국과 일본에서 특히 중산층 멜로드라마인 블루버드 영화가 세계의 다른 지역보다 특히 더 인기 있었음을 논했다. 이런 면에서 본다면, 할리우드가 가지고 있는 젠더/섹슈얼리티의 재현과 이의 수용과 효과에 관해서 더 많은 유의미한 연구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할리우드 영화가 가지고 있는 젠더와 섹슈얼리티의 재현이 한국적으로 어떻게 수용되었는지, 그 구체적 사회, 문화, 정치, 경제적 맥락을 탐문하는 것은 아주 흥미롭고도 새로운 주제가 될 것이다. 또한 젠더-섹슈얼리티가 트랜스내셔널한 맥락 속에서 한국적으로 전유되는 것은 단순히 영화의 이미지, 아이콘, 형식, 문법을 차용하는 차원을 넘어서, 그것이 가지고 있는 “감정 구조”¹²⁾들의 섞임과 반향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할리우드가 한국에 불러온 감정적 구조에 대한 풍성한 해석들을 불러 올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본다.

12) “감정 구조(structures of feeling)”라는 개념은 Raymond Williams에 의해 주창되었다. 이 개념은 그람시의 ‘헤게모니’를 발전시켜 지배적인 사회 구조에서도 새로운 생각이 출현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즉 헤게모니 속에서도 새로운 아이디어와 변화가 생기는 것은 이러한 현재진행적인 “감정구조”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Raymond Williams, *Marxism and Literatur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78. 제 9장 참조.